

MAIN PROPOSAL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거점 국립대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126-000051-08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일 2021년 2월 10일(통권 제12호)
발행인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 작 굿디자인연구소(T. 051-796-6600)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Date of issue 10/02/2021 (Vol.12)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 051-796-6600)



인사말 PRESIDENT'S REMARKS

04

교류와 소통으로 얻어진 결실!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자양분!
The Fruits of Exchange and
Communication and What's Need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메인기획 MAIN PROPOSAL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거점 국립대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06

국가균형발전, 왜 국가 거점 국립대인가
The Role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10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학사교류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for and Strategy to achieve
an Academic Exchange Network between
Korea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12

거점 국립대의 '댐'과 '플랫폼'의 역할
The Role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Dams' and 'Platforms'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15

거점 국립대,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Need to Become the Game Changer

거점 국립대 소식 KOREA NU10 NEWS

18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간 교류 활성화!
1학기부터 교류 수학생에게 장학금 등 지원
향후 교수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으로 확대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y supporting scholarships for exchange
students starting from the first semester
and expanding collaboration covering
faculty exchange and joint research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22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24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26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8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30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32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4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6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8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40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42

Introduction to Korea NU10

교류와 소통으로 얻어진 결실!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자양분!

The Fruits of Exchange and Communication and
What's Need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송석언
Seok-Eon Song Ph.D.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
제주대학교 총장

President, Jeju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2020 The Council of the
President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Korea NU10 Magazine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 19가 종식돼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활기찬 캠퍼스에 서의 대면 수업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교류수학, 연수, 인턴십 및 봉사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원해 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보편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여러 현안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매주 실시하는 원격 화상회의는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회의에서는 거점 국립대학간의 교류 수학, 교수 교류, 국책 사업, 재정확충, 교수 증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에, 거점 국립대학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 등을 통해 필요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면서 당면한 난국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학 가족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As we celebrate the new year, I am pleased to greet each of you with the first edition of Korea NU10 Magazine.

In the new year, I hope t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end and we can return to our previous daily lives on campus participating in active face-to-face classes, exchange programs, training, internships, and volunteer activities both here at home and abroad.

Last year, all of us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non-face-to-face classes as this style became common due to the pandemic, and as social distance strengthened, it was also a time when our efforts to adapt to these changes took center stage.

One of these efforts became the weekly teleconference held by the president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exchange views and gather useful information on growing issues.

As these meetings continue, we have made great effort to advance our current status by exchanging ideas on important issues that can contribute to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the exchange of students and professors, securing national projects, financial expansion, faculty reinforcement, and an increase in recruitment of local talent at public institutions.

In the post-COVID-19 era, when the school age population is decreasing while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look forward to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ommunity so that, through positive exchange and communication, we can effectively overcome the difficulties we face.

메인기획 Main Proposal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거점 국립대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 논의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네트워크 논의도 재 점화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국립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 산업계가 연계할 때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국립대는 지난 70여 년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돼왔다. 특히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의 역할은 더 컸다.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왜 '국가 거점 국립대'인지 살펴봤다.

As discussions continue on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relocation of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Sejong City to resolve overcrow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nder the framework of "complet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discussions on the network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have also been rekindled. Moon Jae-in, the president of Korea has been clear in his stance tha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possible when local national universities and municipal governments take a central stance, and local communities work together with local industry." National universities have been the found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past 70 years and in particular,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each region was of great importance. In this issue, we will go through why one of the main agenda points for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OREA NU10

MAIN PROPOSAL 1

국가균형발전, 왜 국가 거점 국립대인가

The Role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
Shi-Chul Lee
Executive Vice Presi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 2020년 대학-지자체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플랫폼사업(RIS)에서 충북대와 경상대가 선정되어 2024년까지 각각 2,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경상대는 도내 17개 대학을 총괄하면서 LG, LH 등 49개 기관과 협력한다. 충북대 역시 도내 15개 대학, 교육청, TP,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에 앞장서게 되었다.

B.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의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앞장섰던 전남대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캠퍼스 11곳, 5km 공간을 이어 '민주길'을 열었으며 '민주역사기념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대는 RIS 사업에 선정됨과 동시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등도 맡음으로써 호남 교육과 발전의 기둥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C. 2020년 3월 제1차 코로나 위기 당시 경북대는 전국 최초로 최대 규모로 캠퍼스 내 기숙사를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약 400명을 치료하여 내보냄으로써 초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수도권에서도 고려대, 경기대 등이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 병상으로 내놓았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 세계표준이 된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최초로 실전에서 활용, 확산시키기도 했다.

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ere selected for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Project (RIS) based on university-government cooperation in 2020, and each were pledged more than 200 billion won in support through 2024.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s in charge of 17 universities in the province and cooperates with 49 institutions including LG and LH.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lso took the lead in innovating the bio-health industry in cooperation with 15 universities, education offices, TPs, and chambers of commerce in the province.

B.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hich has taken the lead in the name of justice and democracy whenever the country was in crisis, opened 11 five kilometer-long spaces in the campus, and plans to build a "Democracy Road" to mark the 40th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addi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another RIS project, will also take charge of the "University Town-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nfirming that it is a pillar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Honam region.

C. During the early COVID-19 stage in March 2020,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layed a major role in overcoming the initial crisis by providing its dormitories on campus as a "Community Treatment Center" for about 400 patients with mild symptom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n Chilgok utilized and implemented a world's first "drive-through" test, which became the global standard for coronavirus testing.

불과 몇몇 사례만을 보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국가 거점 국립대는 빛을 발하는 가운데 책임을 다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주요 국립대 9개를 묶어 국가 거점 국립대(KoreaNU10)로 일컫는데,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국면에서도 핵심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왜 국가 거점 국립대인가? 이 글에서 간략히 3가지, 즉 가치(value), 이익(interests), 책임(responsibility) 관점에서 살펴본다.

첫째, 국가 거점 국립대는 균형과 정의의 가치를 확실하게 실천한다. 이 중요한 가치를 단순히 표면적·결과적 평등의 관점으로만 주장하는 것은 무리스럽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이는 철학적 논의에 더하여, 현실의 우리 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과도 직접 연결된다.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최고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내세운 데서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분권-혁신-포용을 내세우면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에서 구체화한다. 균형의 맥락 서 거점 국립대의 주도적 역할은 더 확장 심화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 또한 지역의 혁신이 국립대로부터 시작된다며 그 역할을 강조하였지 않은가. 최근 능력주의 또는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2019년, 2020년에 각각 예일과 하버드의 다니엘 마코비츠(Daniel Markovits),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 등이 임팩트있게 비판했던 바, 요컨대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당연해 보이는 논리에 정면 도전한다. 메리트크라시의 정착으로 '엘리트 세습'이 정착되면서 교육과 일자리조차 결국 대물림되는 것 아닌가? 우리들 대부분이 이렇게 '공정하다는 착각'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이들의 논의를 연장하면, 개인 및 계층과는 별도로 이를테면 '공간 메리트크라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정치·경제·사회적 가치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특정 공간-주민-대학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작동한 결과라 가정하더라도, 이미 그로 인해 온나라가 동맥경화와 팔다리 근육 상실로 병들고 있지 않은가. 지방출신의 평균적 젊은이들이 서울에 집을 구해 사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졌는지 모른다. 지역 대학의 관점에서는, 최근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BK, LINC 사업 등 국책과제 경쟁에서 현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수도권 경쟁자들과 애초부터 밀렸던 현실도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 공간과 대학 단위의 메리트크라시를 엄격히 강조하면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라는 말이 될 수 있다. 특히 현 단계에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차별화된 자원과 역할 부여는, 전체 규칙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조건을 실질적으로 평평하게 함으로써 균형과 배분 정의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국가 거점 국립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나라와 지역 모두에 극대화될 실

Even with a few examples, we can see how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continually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throughout the year. Major national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corporatized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called KoreaNU 10, which is also given a key role i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y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briefly look into it in three aspects: value, interest, and responsibility.

First,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learly practice the value of balance and justice. Claiming this important value simply from the perspective of superficial and consequential equality is less convincing. In addition to the philosophical arguments,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vis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current government's will to become an "evenly affluent country" is the highest vision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which can be seen from its emphasis on "a country with a strong region, a balanced Korea." In addition, the 4th Five-year Pla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2018-'22) also specifies this citing decentralization, innovation and inclusion as the three major value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balance, the leading role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expanded and deepened. President Moon also stressed this role, saying that regional innovation begins with national universities.

Recently, discussions on meritocracy have emerged. As Daniel-Markovits and Michael Sandel, Yale and Harvard professor, respectively, heavily criticized meritocratic society in 2019 and 2020. In short, this nature of critique confronts the seemingly natural logic that social status is determined by effort and ability. With the establishment of Meritocracy, aren't education and jobs eventually handed down as the "elite hereditary" settlement? Aren't most of us buried in this 'conception of fairness'? In extension, apart from individuals and classes, a term of 'space meritocracy' can be included in the discussion. Assuming that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valu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result of residents and universities' invisible "ability" (though this is not likely), the country is therefore already suffering from 'metaphorical loss of limbs'. It may have already become impossible for the average young people from outside Seoul to buy houses and live in Seoul.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universiti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urrent environment and conditions have pushed back local universities in competition for national projects such as BK and LINC projects. Strict emphasis on space and college-level meritocracy can mean that they continue to play in "slanted playgrounds." In particular, even if overall rules cannot be changed, differentiated support and rolegiving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t this stage can yield substantially flattening the 'unfair' conditions.





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냉혹한 자본과 시장(market)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사립대와 소규모 대학이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 교수는 시장을 일컬어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라고까지 하며, 그 효율성과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성을 의심한 바 있다. 우리 사회 특히 대학을 방치할 경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외부 불경제(externalities)'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메이저 사립대학을 제외한다면, 인문학 등 기초학문과 취약 분야의 연구지원, 중장기 학문공동체의 유지 발전, 서민-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 등의 역할을 떠맡을 주제로 국가 거점 국립대가 최적 아닌가. 앞서 언급한 RIS 사업이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광역권의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을 묶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마중물의 사례이다. 아울러, 최근 국가적 화두가 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실질적으로 국립대의 지향성과 연결된다. 이를 지역의 맥락에서 해석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이라 본다. 즉,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다. 크게 3가지 유형 즉, i)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ii)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균형사업, iii)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뉠 텐데, 어느 유형이든 거점 국립대는 이를 떠안을 역량과 자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거점마다 뿌리를 내린 주요 대학과 지역 발전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프랑스와 일본의 국립대, 우연히 숫자조차 비슷한 독일의 9개 거점국립대(TU9)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2020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의원)와 거점 국립대 총장대표의 회의에서도 국립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 철폐가 절실함이 강조되었다.

셋째,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 경영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10개 중 8개꼴로 사립대이므로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큰지는 자명하겠지만, 국립대 고유의 특성과 사명은 사실인 동시에 국가의 공식 약속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립대학회계법」 등 법률은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경영의 효율성도 추구한다. 특히 단순히 나라 살림으로 이들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는...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못박으며 의무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메이저 거점 국립대의 재정조차 해마다 중앙 정치와 관료체제에 붙잡혀 있다.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Second, i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lay their role properly, they will bring maximum practical benefits to both the country and its regions. Complementing the functions of a harsh capital and market,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doing what private and small sized universities cannot do and are actually playing that role. Professor Stiglitz, a Nobel Prize winner in economics, even referred to the market as a “mechanical device that produces inequality” and doubted its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invisible hand.” If our society, especially universities, are left unattended, the inevitable “externalities” costs will be enormous. With some major private universities excluded,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best positioned to take on the role of research support in basic studies and vulnerable fields such as humanities,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mid-to long-term academic communities, and to give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to children of the average and low-income families.

The aforementioned RIS is an example of a priming project that creates sustainable innovation by combining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the center. In addit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which has recently become a big story nationwide, is actually linked to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 think it is a balanced regional New Deal to link this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interpreting it in the context of the region. In other words, it transforms the axis of national development into a regional center, thereby securing new growth engines in the region and turning it into an opportunity to innovate the local economy. It will be divided into three main types: i) Nationwide Korean New Deal, ii) Local Government-led Regional Balance Project, and iii) Public institutions-led New Deal Project.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the capabilities and qualifications to partake in every area. The cases that major universities in the region and regional developments directly connect to are also seen in France, Japan and Germany, with Germany having nine national universities (TU9). At a meeting in December 2020 between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s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Rep. Seo Young-kyo) and som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the need for stable financial support and elimination of various regulations was emphasized.

Third, centr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wards national universities cannot be overlooked. Basically, national universities are established and managed by the nation. Since eight out of 10 universities in Korea are private, it is clear which side has a louder voice, but the unique characteris-

공직자들의 역량과 열정을 의심하지 않으며, 상당한 경쟁과 평가를 거쳐 세금자원을 배분하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렇더라도 중앙관료의 '비극적 총명함(tragic brilliance)'이나 정부의 에너지 낭비가 불필요하거나 해로울 때가 많다.

많은 국립대가 해마다 공모 형태로 운영되는 재정사업비를 따지 못하는데, 이는 국가가 다수 국립대를 보듬지 못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물론 근본 이슈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규모에 걸맞는 고등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의 재정상황이 거점 국립대조차 절박한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이전에도 이미 대학의 전반적 수입이 줄고 지출은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심각했는데, 코로나19에 기인한 급격한 재정 압박은 글자 그대로 '절벽'으로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다. 대학과 국가의 공동책임 아니겠는가.

2020년을 넘기는 팬데믹 국면에서 국토공간의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새로 제기되는 것이 놀랍지 않다. 도시 밀도-방역안전의 상충 논의와 연계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적 가치가 집중되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도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닐 터이다. 천정부지의 아파트값에 더하여 감염병 집중 발생의 확률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사회적 영역의 분산 없이 보건 의료 분야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어렵다. 물론 감염병 대응에서 의료 인프라의 집중도 꼭 필요하므로 지나친 분산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아마도 차선의 해답은 전국 차원의 분산화(national deconcentration), 광역 차원의 집중화(regional concentration) 아닐까. 역시 국가 거점 국립대의 존재 및 위상과도 딱 떨어맞는다.

2019년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었으며 고용-기업-세금-서비스 측면의 가치 비중은 70%를 넘나든다. 국토면적의 1%, 12%씩인 서울과 수도권에 1,000대 기업 본사가 74%나 밀집해 있는 것 역시 그리 큰 뉴스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래 지역균형 캠페인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찬반 논쟁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과잉 집중과 격차 확대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었음은 틀림없다. 예컨대 행복도시·혁신도시 사업만 해도 2012-18년 기간에 수도권 인구가 실제로 많이 빠져나감으로써 일부나마 공간적 형평성이 구현된 것으로 실증된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9개 중심지에 자리잡아 고품질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는 지역의 인재와 경제사회적 자산을 붙잡아 두는 최후의 보루이다. 능력과 형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비책이기도 하다. 갈 길 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거점 국립대의 가치, 역할, 책임을 거듭 강조한다.

“다시 뜨겁게”



tics and mission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both true and an official promise to the Korean people.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Act seek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while ensuring stable finances and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ies.

No doubt, it's not just a matter of choice to fiance the universities with national support, but to provide the necessary financial support in a stable manner is set in stone in the legislation. Nevertheless, even major national universities such as Kyungpook, Pusan,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s financial affairs are caught up in Seoul's politics and bureaucracy every year. I do not doubt the competence and enthusiasm of lawmaker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also agreeable that allocating tax resources should be through considerable competition and evaluation. Even so, the "tragic brilliance" of central officials and the government's waste of energy are often unnecessary or even harmful.

Many national universities fail to obtain financial project costs that are run in the form of competition every year, which results in the state's failure to take care of many national universities and violating the law that requires "stable support of necessary finances." Of course, the fundamental issue would be that higher education investment should be made to match the size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Even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annot help but admit that the current financial situation is a desperate crisis.

Even before 2020, the financial conditions were already serious, with overall college income decreasing and spending increasing. Now with COVID-19, it can only be described as a "cliff." A joint action of the universities and the nation is urgently required. It is not surprising that new discussions on how to transform national space are being raised in the face of the pandemic beyond 2020. In conjunction with the debate on the conflict between urban density and public health safety,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economic value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ill never be wise in terms of the continuing response to the pandemic. Aside from the issue of the skyrocketing price of apartments in the capital region,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the probability of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s increases. It is difficult to pursue balanced development in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without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and social values. Of course, focusing medical infrastructure is essential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so excessive dispersion cannot be a sole solution. Perhaps the second best solution would be 'nation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centralization'. That approach happens to fit perfectly with the reason for existence and the statu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2019, the pop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topped 50% of the nation's population, and the proportion of value in terms of employment, business, tax, and service stays around 70%. The fact that 74% of the headquarters of top 1,000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which takes up 1% and 12% of the nation's land, is not that big a news, either. Whether or not the balanced regional campaign really worked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ince 2003 is still arguable, but there is no doubt that excessive concentration and the speed of the gap expanding has been slowed down. For example, thanks to the projects of the Administration Complex City(Sejong) and the Innovation Cities, spatial equity was partly achieved by the population dispersion during the 2012-18 period.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located outside of Seoul in the nine main regional centers, conducting high-quality education and research, are the last bastion for local talents and socio-economic assets. It is also a recipe for both merit and equit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valu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for the far-to-reach grand vis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et's gear up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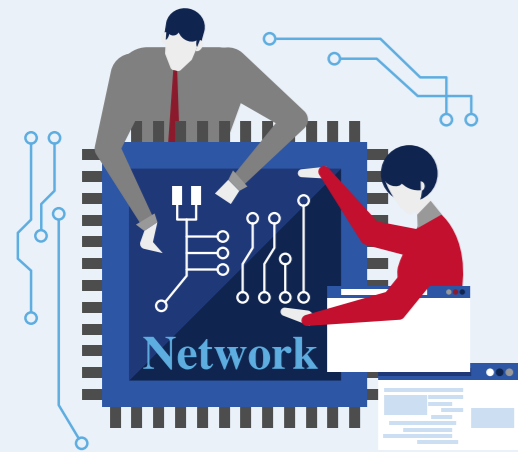
MAIN PROPOSAL 2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학사교류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for and Strategy to achieve an Academic Exchange Network between Korea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최백렬
전북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Choi, Baek-Ryul
Executive Vice President for
External Cooperation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 대학에서는 거점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대학 간 학사교류를 대학교육의 뉴노멀(New Normal)로 제시하며, 학생들이 집을 떠나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어디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류 대학과의 학사 시스템을 폭넓게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사 교류 제도가 활성화되면 재학 중인 대학에 가지 않고도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강의를 듣는 게 가능하게 되어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대부분 대학에서 시행 중인 원격·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 문제도 일부 보완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사교류 활성화를 시작으로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공동·복수 학위제가 시행될 경우 대학 교육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취업, 학교 경쟁력 강화, 장기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 극복이 가능하고,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사 구조가 비슷한 국가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과 학사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였고, 10개 거점대학 총장님들께서 모두 공감해 줌으로써 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다.

2020년도 제4차 국가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학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첫 논의 및 '국가 거점 국립대학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2020.10.08.)'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 간 연합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학사교류 로드맵을 그려보았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 학사교류 정책연구

2021년 1학기 현 교류제도 확대를 시작(1단계)으로, 대학별 교육혁신 방향 설정을 위한 분석·진단을 위하여 대학별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정책 연구(2~4단계)를 추진하고자 한다.

tives for participation, the number of exchanges. This assessment was undertaken with an eye toward identifying factors that currently deter participation in exchanges. Common guidelines to be implemented in early 2021 were prepared as a result of this assessment. Variou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were ultimately proposed to encoura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exchange program. The proposals included abolishing the grade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eliminating grade curves, improving support for participating exchange students by reimbursing or reducing tuition and dormitory fees, and providing participating students with priority allocation to dormitory quarters. An announcement incorporating the input from each university was released by the head of the KFNU's Council of Presidents in December 28, 2020. This announcement and support plan of the KFNU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achieving the goals of the inter-university linkage project and encouraging students to take advantage of this program.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더욱 커졌다.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다. 이 물고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은 크기가 5cm에 지나지 않는데 키우는 장소에 따라 크기가 수십 배가 되기도 한다. 연못에 넣어 두면 15~20cm가 되고, 강에서 자라면 90~120c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한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발휘하는 코이 물고기처럼 대학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 간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대학이 보유한 교육, 연구, 산학, 재원과 숨겨진 잠재력을 공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Future of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The rapid adjustments that universities and students have had to make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ave highlighted how a paradigm shift in education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of necessity. Accordingly, last yea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ubmitted to the other member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sociation (KFNU) that the 'new normal' necessitated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 exchanges between our universities.

If the proposed Exchange System is activated, students will be able to take classes nearer their place of residence, easing the burdens of long-distance travel and reducing their risk of inadvertently contracting or spreading the coronavirus. Moreover, the proposed Exchange will partially alleviate som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emote and non-face-to-face classe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at most universities due to concerns over COVID-19.

While this enhanced cooperation starts with the acceleration of academic exchanges, we look forward to a day when it also includes joint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and culminates in awarding degrees to students educated at multiple campuses. Such an integrated system will improve the quality of classes, enrich students' employment opportu-

nities, and develop the global profile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a competitive research-oriented university. This raised profile will help KFNU universities overcom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demographic crisis that is already seeing lowered enrollment at local universities

We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an academic exchange network with the presidents of other KFNU member universities that have an academic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JBNU. Ultimately, all ten presidents agreed with the proposal and took the first step towards enhanced cooperation.

Based on the initial discussion relating to the promotion of student exchanges at the 4th KFNU Council of Presidents meeting (2020) and the subsequently draft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Promotion of Student Exchanges between the KFNU (Oct.8th, 2020),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s prepared a roadmap for the next steps towards achieving a federated network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tudying the Academic Exchange Policies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nce the expanded exchange system is activat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Step 1), we will organize various working groups to determine the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collectively achieve the goals of Steps 2-4.

In Crisis, Opportunity

Consider the colored carp known as "Koi." This fish looks ordinary, but it has an amazing ability. While a typical Koi found in a fish tank is only 5cm in size, it is capable of growing dozens of times larger depending on the size of its environment. It is said that the Koi is 15~20 cm when placed in a pond, and can reach sizes of 90~120 cm when placed in a river. Just like the Koi fish, I believe that universities can and should adjust their size adaptively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Each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brings to the table distinctive teaching methods, exceptional research agendas and strengths, singular faculty expertise, distinguishing financial resources, and inimitable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and industry. A new cooperate system that shares these resources is the best means of remaining competitive in the post-corona era.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학사교류 정책연구

Studying the Academic
Exchange Policies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TEP 1 1단계

현 교류제도 활성화

Activation of the Current Exchange System

2021년 1학기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류제도 현황(교류자격, 인센티브, 교류인원 등) 조사 및 비활성화 요인 분석을 통하여 대학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교류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성적제한 없음), 성적부여방법(절대평가 적용), 등록금 및 생활관비 지원, 생활관 우선 배정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각 대학 의견을 모아 국가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장 주관 통합공고(2020.12.28.)를 실시하였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만의 단일화된 공고문과 지원책은 학생들의 타고 수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대학 간 연계사업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To facilitate student exchanges in the first semester of 2021,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our exchange programs was performed, including student qualifications for participation, incen-

STEP 2 2단계

edu-tech 적용 교과목 개발을 통한 온·오프라인 교과목 확대

Expansion of the online and offline curriculum through the development of an edu-tech applied curriculum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환경 변화, 에듀테크 발전, 수업방식의 다양화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국내외 학사교류 우수사례 조사를 통하여 대학별 특성화 교과목을 중심으로 edu-tech 적용 교과목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식의 학사 교류 유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We will develop an electronic education platform that can be shared across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each university has uniquely strong programs, each university will support the platform by contributing courses. This platform will incorporate lessons about educational policy changes and environmental adaptation learned by Korean and global universities during the rapid switch to online educational platforms prompted by Covid-19.

STEP 3 3단계

학과 및 전공트랙 단위 공동 교육과정 운영

Operation of a joint curriculum across departments and degree tracks

대학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대학 간 공동으로 운영 가능한 교육과정 및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교류 범위를 한 단계 확장시킬 예정이다.

Participati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ill continuously seek opportunities to expand the curricula for which credit may be awarded on the basis of their unique positions of expertise.



STEP 4 4단계

국가거점국립대학 간 공동학위제 및 복수학위제 운영

Operation of a Joint-degree System

최종 단계로 학생들이 지역 제한 한계에 대한 극복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국가 거점 국립대학 간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도록 하겠다.

Ultimately, KFNU member universities intend to award joint degrees on the basis of credits earned through classes taken across multiple universities, with the goal of helping students avoid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frequent travel and improve employment outcomes.



MAIN PROPOSAL 3

거점 국립대의 ‘댐’과 ‘플랫폼’의 역할

The Role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Dams' and 'Platforms'



강병수
충남대학교 교학부총장
Kang, Byung Su
Academic Vice Presid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입시철이 되면 주요대학 지원 가능 점수가 각 대학 학과와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에 따라 지원 가능학과와 학과를 위에서부터 줄을 세운다. 자연계 의·치과·수의과·약학과를 제외하면 상위 등급에 거점 국립대학 어떤 학과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 우수인재의 대거 유출을 보여주는 상황판이다. 지역인재 유출은 '댐의 원리'와 같다. 댐에 물이 넘치거나 구멍이 나면 그때부터 댐 붕괴는 시작되고 물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빠져 나가게 된다. 지역인재 유출이 이 현상과 정확하게 닮았으며 그 동안 각 거점 국립대학들이 지역 국·사립대학의 '댐'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점 국립대학들이 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여 대학을 진학하면서 잃는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인서울이라 하여 대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수직적으로 서열이 정해지기 시작하였다.

교육부도 이 추세에 편승하여 거점 국립대에 지원해 주던 지원금을 사립대까지 대폭 확대하여 급기야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액이 모든 국립대에 대한 지원액을 능가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서울 소재 우수 사립대학과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졌던 거점 국립대도 그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거점 국립대학보다 서울의 하위권 사립대학이 더 선호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댐'은 붕괴되고 말았다.

거점 국립대학에 진학하던 학생들이 서울소재 사립대학으로 진학하고 지역의 우수 사립대학을 진학하던 학생들이 거점 국립대학을 진학하는, 즉 계단식 이동으로 인해 우수 지역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및 전문직직 공급기관으로서 거점 국립대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선진국들이 지역발전의 핵심적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학협력도 지지부진해지고 말았다.

During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eason, it is common to see lists of universities and departments sorted in accordance to standard and percentile scores connected to each university's department ratings. Other than medicine, dentistry, veterinary medicine, and pharmaceutical departments in natural sciences, no department of any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s seen in the upper ranks. This is a situation that highlights the massive outflow of talented students from the region.

The outflow of local talent is the same as the 'principles of a dam.' When the dam overflows or has a hole, the dam begins to collapse and, in turn, water escapes. The outflow of local talent is similar to this phenomenon, and each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a dam towards local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Until the 1980s, the external outflow of local talent was not so severe a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ere functioning well enough to hold on to outstanding students. However, since the 1990s, universities around Seoul began to rank higher,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distance from the capital Seoul with the words "In Seoul" becoming a trend.

Jumping on the wagon of this trend, the Ministry of Education expanded the amount of support provided to private universities to the point where support for private universities outnumbered the total amount supported for all national universities, and as a result,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at were competing with high-ranking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started to give up their positions. In the end, as the lower-ranked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began to be preferred over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he "dam" preventing the outflow of local talent collapsed.

The outflow of local talent is growing more severe with each step as students who used to ente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now matriculating to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and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filled with students who used to enter local private universities. This has resulted in weakening the traditional statu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

지역인재 유출의 최후 보루이자 댐 역할을 하던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의 우수 사립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교육의 공정성이나 기회균등,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도 사상의 누각이 된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이지 않으면 계단식 대학진학으로 인해 지역의 모든 국·사립대도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지방에 있으면서도 서울의 우수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우수 학생의 이미지를 갖도록 교사 및 교육·실습·교육기자재 등을 정비하고 우수 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 면제 등을 추진한다면 빠른 속도로 거점 국립대의 위상을 회복하면서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 교육 및 연구환경의 복구는 붕괴된 댐을 복구하는 것이며 이 역할은 오랫동안 '댐' 붕괴를 방지한 국가의 역할이며 몫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학 학생들에게 전면 장학금을 주려면 연간 약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붕괴된 댐을 복구하는데 연간 약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나 정부는 아직 투자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학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학의 고유 기능인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영역에서 각 기능별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새로운 아이디어 즉, 혁신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과 구별하여 혁신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 동안 거점 국립대의 '혁신 플랫폼'은 시기별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과거에는 지역 내의 독보적인 인프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지역단독형 단일 혁신 플랫폼'이었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타 대학들의 미흡한 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거점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든 대학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도 학사운영의 제도적 유연성과 변화속도가 중요해지면서 서울의 우수 사립대가 거점 국립대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최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졸업 이후 취업기회가 감소되면서 전공운영은 실용화되고 교육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다. 연구도 BK21플러스,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우수 연구집단이 육성되고 있으며, 경쟁에 기반해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

sities as local talent nurturers and suppliers of expertise for local business has put academic-industry collaboration, - a key engine for regional development - in a difficult position.

I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hich used to serve as the last bastion and dam for the outflow of local talent, are not raised to the level of Seoul's best private universities, the goal of fairness in education, equal opportunity, and eve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ll become a house of cards.

If the social awareness and statu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s not improved, all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in the region will be affected by the damage because of the local talent outflow. If measures are taken such as securing top academics and maintaining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and all students are exempted from tuition fee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ill re-gain their old glory at a fast pace and prevent the outflow of local talent. The restoration of basic education and a research environment means the restoration of the "dam," which i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that has long neglected the "dam" collaps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it is estimated that it will cost about 300 billion won a year to give full scholarships to students enrolled at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it will take about 1.5 trillion won a year to restore the collapsed dam, which may take five years at the least (and possibly up to ten years) to accomplish. The amount is not that large considering the national budget, but the government has yet to invest.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are called platforms because they achieve their goals by connecting suppliers and consumers for each funct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service, which are unique functions of the university. Since universities are in charge of new ideas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nctions that produce innovation, they are said to be innovation platforms distinguished from other platforms.

The 'innovation platform'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s undergone many changes over time. In the past, it was a 'regional single innovation platform' taking a practically monopolistic position as an unrivaled infrastructure within the region. It stemmed from the nation's full support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insufficient conditions of other universities.

Now, however, all other universities are building their own platforms and show competitiveness lik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Seoul's top private universities are receiving more financial support than the flag-

<표1>최상위법인 국립대 및 사립대간 핵심 영역별 행·재정 비교

분야	세부항목	최상위법인 국립대	거점 국립대 평균	상위 사립대 평균
교육	1) 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44,747	16,898	22,162
	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²⁾	22%	36%	52%
	3)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배)	7	4	3
	4) 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3,150	2,684	3,315
	5)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52%	64%	40%
	6) 전임교원 확보율(재학생기준)	124%	88%	87%
산학·연구	1)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천원)	233,875	94,008	139,268
	2)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교내연구비, 교원학술활동경비)(천원)	7,588	7,820	11,828
	3)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교외+교내)(천원)	233,999	94,096	139,355
글로벌	1)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4.7%	2%	7%
	2) 학부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9%	6%	16%

주: 1) 사립대는 종합 4년제 대학으로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2019.11.16.) 상위 10위 이내 대학 중 성균관대, 한양대(서울), 연세대(서울), 고려대(서울), 경희대, 중앙대, 서강대(이화여대, 한양대(ERICA), 아주대를 선정하였음. 세입 중 등록금비율과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은 자료부족으로 한양대(ERICA)를 제외한 9개 대학의 평균을 구한 값임.

2) 최상위법인국립대는 서울대로 2019년도 법인회계 예산현황, 거점국립대는 통계연보와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립대는 사립대학재정회계지표를 참조하였음.

자료: 각 대학별 2019년 통계연보,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대학알리미

<Table 1> Comparison of core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tween universities

Area	Category	Top Corporate National Univ.	Flagship National Univ. (Average)	Top Private Univ.*1 (Average)
Education	1) Education fee per student	44,747	16,898	22,162
	2) Tuition ratio to revenue*2	22%	36%	52%
	3) Education fee ratio to tuition fee (multiples)	7	4	3
	4) Scholarship per student	3,150	2,684	3,315
	5) Scholarship ratio to tuition	52%	64%	40%
	6) Full-time faculty ration (per student enrollment)	124%	88%	87%
Academic Industry Collaboration Research	1) External research fund per full-time faculty	233,875	94,008	139,268
	2) Internal research fund per full-time faculty (International research fund, faculty academic activity fees)	7,588	7,820	11,828
	3) Research funds per full-time faculty (External and internal combined)	233,999	94,096	139,355
Global	1) Ratio of foreign full-time faculty	4.7%	2%	7%
	2) Undergraduate degree-seeking foreign student ratio	9%	6%	16%

Note: *1) Private universities include Sungkyunkwan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Seou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University (Seoul), Kyunghee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ERICA) and Ajou University among the top 10 universities in the 2019 JoongAng Ilbo University Evaluation (2019.11.16). The ratio of tuition fees to revenue and education ratio to tuition fees is the average of nine universities except Hanyang University (ERICA) due to lack of data.
 *2) Top corporate national university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Budget status is refereed to corporate accounting budget status for SNU, statistical yearbook and 2019 FY university accounting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for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nd financial accounting indicators for private universities.
 Source: Statistical yearbook 2019 of universities, 2019 FY university accounting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Information taken from Higher Education in Korea

한 각 지역 발전연구원과 같은 지자체의 독자 전문기관이 설립 및 운영되어 지역 내 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기관들과 지역내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거점 국립대는 '경쟁형 개별 혁신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거점 국립대의 미래 플랫폼은 어떤 것일까? 다가오는 미래에는 고등교육 기회가 다양화하고 대학 졸업 후 경력선택도 다양화할 것이므로 수요자 선택형 교육수요 위주로 갈 것이다. 기초연구가 확대되고 인문 및 이공계 분야가 융합하면서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되고 양적인 연구성과 보다는 질적인 연구성과가 우선할 것이다. 또한 전공뿐만 아니라 대학 간에도 협력적 연구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기술상업화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공헌과의 관계에서도 거점 국립대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지역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며,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거점 국립대는 지역 내 다양한 플랫폼을 연결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형 융복합 혁신 플랫폼'으로 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교육부가 공모했던 '지자체-대학 지역혁신(RIS) 플랫폼'사업에서도 거점 국립대가 '경쟁 관계'보다는 '협력과 공유 관계'로 진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정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가 지금의 '경쟁형 개별 혁신 플랫폼'에서 '공유형 융·복합 혁신 플랫폼'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거점 국립대가 타 대학과 연구소,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연계체제를 만드는 데 '공유형 융복합 혁신 플랫폼'이 되어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만들어가고 채워 넣는 것이, '담의 복구가 국가의 몫'이듯 거점 국립대의 시대적 역할이며 몫이다.

ship national universities, as institutional flexibility and the speed of change are seen to be more important in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Recently, with higher education becoming comm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decreasing, major study operations have become practical and demand for education has diversified. Research groups such as BK21 Plus and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are being fostered, and research funds are supported based on competition. In addition, as local governments start to establish and operate independent specialized institutions,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s, compet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universities in the region and local specialized institutions led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operate as 'competitive individual innovative platforms.'

Then, what is the future platform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future,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areer choices will be diversified, so the focus must be on demand. As basic research expands, and humanities,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converge, convergence research will be activated and quality research results will take precedence over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In addition,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is expected to be further activated as cooperative research networks are strengthened not only among majors but also between universities.

In relation to community contribution,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ill also use online and offline functions to serve as a hub for lifelong education in the region, and will share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by sharing libraries, gyms, and cultural facilities. Therefore,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expected to become a "shared convergence innovation platform" that connects various platforms in the region and realizes the future value of the region through cooperation.

This is why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advance to a "cooperative and sharing relationship" rather than a "competitiv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Local-University Regional Innovation (RIS) Platform" project, which the Ministry of Education conducted i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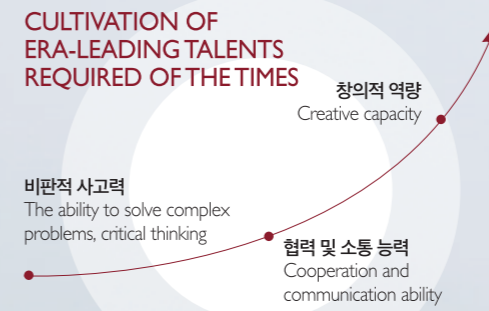
In order to create synergy by utilizing limited local resources,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no choice but to advance from the current "competitive individual innovation platform" to a "shared convergence innovation platform." As the restoration of the 'dam' is the nation's responsibility, it is the role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create a "shared convergence innovation platform" to create a cooperative linkage system between other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거점 국립대,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Won-Hwa Hong
Presi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Need to Become the Game Changer



고품격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 필요

Lead Innovative Changes to Foster Creative Convergence Talent by Providing High-Quality Education Services

오늘날 거점 국립대들을 둘러싼 여건은 녹록치 않다. 국가 공간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 등 어느 하나 십사리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거점 국립대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비수도권 대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적 문제들이다. 하지만, 국가의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에 권역별 앵커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거점 국립대의 어려움은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인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f today are not easy. Troubling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easily, such as the deepening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busines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ecline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an outflow of talented people are making it difficult to operate national universities. Of course, these are common problems for most non-capital universities. However, the current difficulties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hich have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anchors for each region in fostering the nation's academic devel-

초지능성과 초연결성의 결합을 통해 초융합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초지능성은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바탕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에 기반으로 하고 있고, 초연결성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을 바탕으로 한다.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사물 또는 기계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사람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내는 사회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점 국립대는 위험적 요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도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거점 국립대의 본질적 과업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은 이러한 급변기에는 더욱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6)에서 밝힌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역량', '협력 및

소통 능력' 등의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 교육과정의 구조적·질적 혁신과 함께 학생들의 창의 융합적 사고와 경험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 중 처음으로 ITA(Industrial Technology Advances-산업기술 고도화 분야) 융합전공들을 중심으로 융합 학부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정의 혁신적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융합학부 내에 AI(인공지능), BST(의생명융합공학), 로봇 및 스마트시스템공학,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 4개 각 전공들은 별도의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운영된다. 전임교원 16명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여러 단과대학 소속 겸임교수들이 함께 커리큘럼을 개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학사구조와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융합학부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교육혁신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사회의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고유 기능의 고도화와 대학원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원정책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종 지역혁신 사업 등과 연결될 지역사회 연계 실무형 전문석사학위제도와 지역의 대학 간 대학원 공동 석·박사학위제도 운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유대학원' 모델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착근시키면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거점 국립대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다. 향후 우리 거점 국립대들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유연하면서도 강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대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품격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를 이끌어갈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찾아오고 싶은', '찾아오느'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육성지원 정책과 분권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혁신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적 아픔이 두려워 혁신적 노력을 주저한다면, 환경적 변화에서 주도자로서의 위치가 아닌 영원히 종속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국립대가 고등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으고, 열정을 다할 시기이다.

“거점 국립대학들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유연하면서도 강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대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lead the innov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while establishing a flexible and robust cooperation system.”



opment and training of talent, will inevitab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tire nation, well beyond the local community.

In the midst of this, we face another huge wave of chang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eaturing super-convergence through the combination of super-intelligence and su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i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superior to humans, based on big data and deep learning, while super-connectivity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system based on digital technology. Now, a new society has emerged in which objects or machines exchange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bring people and cities together without human intervention.

As a result,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need to wisely overcome risk factors while making challenging effort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essential task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ultivation of era-leading talents required of the times," is bound to be even more important in this fast-paced period. As stated in the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s talented people with capabilities such as "the ability to solve complex problems," "critical thinking," "creative capacity," and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order to cultivate these capabilities, first of all, the cooper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is essential to expand students' creative thinking and experience, along with structural and qualitative innovation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In line with th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s currently pursuing innovative experiments in its curriculum by establishing a convergence department centered on ITA (Industrial Technology Advances) convergence majors. The four majors, which include AI (Artificial Intelligence), BST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Robot and Smart Systems, Hydrogen and Renewable Energy do not recruit freshmen, but selects students among already enrolled undergraduate students and operate undergraduate-master's combined courses. Over 100 professors from various colleges, including 16 full-time faculty members, plan to develop a curriculum together to operate a future academic structure and innovative curriculum that can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

sity will focus its capabilities and resources in making convergence departments successful models of educational innovation.

In addition, systematic and strategic efforts are being made with the Graduate School Policy Office taking a main role in advancing the unique function of fostering the academic next gen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to promote innovation in the graduate school curriculum. In particular, operation of a community-linked professional master's degree system that will be in connection with various regional innovative projects and a joint graduate degree system between local universities are being actively progressed. Through this, the role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for shared growth with the local community will be strengthened by successfully focusing on the 'shared graduate school model.'

Going forward,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lead the innov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while establishing a flexible and robust cooperation system. We should do our best to become a university that students want to attend by providing high-quality educational services to foster creative convergence talent that will lead the community, the nation and the worl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for the presidents of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to raise a united voice so that the government's current policy of supporting national universities and decentralization are realized.

Innovation is bound to be accompanied by hardships. However, if we hesitate to make innovative efforts out of a fear of short-term difficult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remain subordinate forever, not as leaders in environmental change. It is time for national universities to gather insight and do their best to become game changers that can lead innovativ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간 교류 활성화! 1학기부터 교류 수학생에게 장학금 등 지원 향후 교수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으로 확대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y supporting scholarships for exchange students starting from the first semester and expanding collaboration covering faculty exchange and joint research



Mitigating the retirement age limit for adjunct professors



Revitalizing the financial support of national universities



Expanding the recruitment ratio of local talent at public institutions



Increase of professors and student numbers at national universities



Expansion the scope of National University Nurturing Project costs

총장협의회, 매주 원격 화상회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지혜와 역량 결집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송석연 제주대 총장)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매주 거점 국립대 학 총장들이 참석하는 '원격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원격 화상회의는 거점 국립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1월 8일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원격 화상회의에서는 대학 현안사항을 비롯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 거점 국립대학간의 학생 및 교수 교류 등 여러 안건에 관해 활발한 의견 교환과 더불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도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안건 중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현행 30% → 50%) ▲국립대 교수 및 직원 정원 확대 ▲지방자치 단체의 국립대학 재정지원 활성화 ▲석좌교수 정년제한 완화 ▲국립대학육성사업 3차년도 사업비 이월 범위 확대 방안 등은 총장협의회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정부에 건의 됐다.

거점 국립대학간의 학생 교류는 지난 10월 8일 제주에서 열린 제4차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학점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이 이뤄지면서 추진된 것으로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의 학생교류 계획(안)에 따르면 교류 수학생에게는 등록금 지원 여부(교내외 장학금 포함)와 관계없이 생활지원 장학금과 생활관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거점 국립대학교간 교수 교류 계획도 조만간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학생과 교수 교류 이외에도 거점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것을 기대해 본다.

The Council of Presidents meets weekly by remote video conference to gather ideas and capabilities to address pending challenges

The Council of Presidents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hairman Song Seok-eon, Presid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holds weekly remote video conference meetings since October 16th of last year.

Aiming to gather ideas and capabilities needed to address the challenges that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are facing, the council had 11 remote video conferences as of January 8th. During teleconferences, opinions are discussed on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 and exchanges of students and professors amo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olicy research is also being carried out on issues that need further study. Utilizing the collection and confirmed opinions of the Council of Presidents, items on the agenda have been suggested to the government including: ▲ Expanding the recruitment ratio of local talent at public institutions (30% → 50%) ▲ Increase of professors and student numbers at national universities ▲ Revitalizing the financial support of national universities ▲ Mitigating the retirement age limit for adjunct professors ▲ Expansion the scope of National University Nurturing Project costs of the third year forwarded to next year.

Student exchanges betwee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ere agreed at the 4th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ial Council held on October 8th in Jeju, and will be carried out from the first semester of this year. According to the current student exchange plan, exchange students will receive additional living expenses and dormitory fe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ill receive tuition scholarships (including in-school scholarships).

The plan to exchange professors betwee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s also expected to be implemented soon. In addition to exchange of students and professors, it is hoped that various attempts will be mad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education and research resources at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NU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KOREA NU10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Leap forward, PNU
부산대학교

Audacious Intellects
Leap forward,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pusan.ac.kr SNS <https://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v>

**부산대,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5회째 수상
교육부 ‘명예의 전당’ 헌액...국립대 최초**

PNU Has Won the Grand Prize at the Korea Donation for Education Awards for the Fifth Time
First National University to be Inducted into the Korea Donation for Education Hall of Fame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부산대학교가 2020년도 교육부의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 5회째 선정되면서, 지난 15년간 활발하게 이어 온 교육기부 활동의 누적성과를 인정받아 국립대 최초로 「대한민국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대는 시행 첫 해인 지난 2012년 처음 '제1회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2020년 다섯 차례 수상을 기록했다. 5회 수상은 국립대 중 부산대가 유일한 기록이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5회째 수상을 기록한 이번 성과는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그간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2020년 부산대는 교육기부 활동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뛰어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됨으로써 교육기부에서 최고 명예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부산대는 2005년 '해외봉사활동' 과목을 처음 개설해 2006년 1월 베트남 하노이로 교수·학생 등 32명을 파견하고, 국내에서는 2007년 '금정구 소년·소녀 가장 대학생 멘토링'에 재학생 30명을 참여시키며 교육기부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교육지원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삼성드림클래스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교육기부를 활성화했으며, 2012년 지역 교육기부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기여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교육기부 활동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기부 사업에 참여해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for the fifth time in the 2020 Ministry of Education's Korea Donation for Education Grand Prize. PNU was recognised for its cumulative achievements in educational volunteering activities over the past 15 years. PNU i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to be named to the Korea Donation for Education Hall of Fame.

PNU received the 1st Donation for Education Grand Prize for the first time in 2012, the inaugural year of the award, and was awarded for the fifth time in 2020, following wins in 2014, 2016, and 2017. PNU is the only national university to win the award five times.

This achievement, the 5th Korea Donation for Education Grand Prize, was based upon an evaluation of the university's volunteering efforts and performance over the last two years. In particular, it continued to vigorously promote volunteer education activities, and its programs were very active. PNU was inducted into the Hall of Fame in 2020; the highest honor in educational volunteering.

PNU began the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course in 2005 by dispatching 32 professors and students to Hanoi, Vietnam in January 2006. Domestically, PNU began its educational volunteering activities by encouraging 30 enrolled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Geumjeong-gu juvenile heads of households and university student mentoring program starting in 2007.

PNU promoted joint educational volunteering programs with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its affiliated education support offices, the ChildFund Korea, and the Samsung Dream Class. Also, PNU opened the Local Community Donation Center to manage the local educational donation project in 2012. PNU has endeavored to continue and expand its volunteer education activities.

Last year, despite the difficulties with volunteering face to face due to COVID-19, more than 1,000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al donation project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classes.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bridge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and classes, and it has produced valuable results.

**부산대 로스쿨, 2021년 검사 11명 합격
‘2년 연속’ 전국 로스쿨 최고 1위 기록**

11 Students from PNU Law School Become Prosecutors in 2021
PNU Law School Has Ranked 1st among the Nation's law schools for Two Consecutive Years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법무부의 '2021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 합격자(101명)' 집계 결과, 모두 11명(재학생 8명, 군법무관 출신 3명)의 검사 합격자를 배출해 고려대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9명보다 2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부산대는 2년 연속 전국 대학 로스쿨 중 최고 1위의 기록을 세우며 '로스쿨 명문'으로 우뚝 서고 있다.

더불어 부산대 로스쿨은 올해 5월 임용하게 될 대법원의 로클럭(예비판사) 합격자도 지난해 3명보다 4명이 많은 7명을 배출해 전국 최상위권 성과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법조경력 신임법관 임용에서 부산대 로스쿨 출신 6명이 판사로 임용돼 전국 대학 로스쿨 3위의 쾌거를 올렸고, 지난해 초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부산대 로스쿨 9기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1.32%를 기록해 전국 국립대 로스쿨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부산대 로스쿨이 전국 최상위 성과를 달성하면서 대외적 위상이 향상됨에 따라 법조 분야로 진출하려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지원하고 있어 선순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2021 Final Passers for New Prosecutors Selection (a total of 101 students passed)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December 17 last year, 11 students (8 enrolled students, 3 former military judicial officer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have passed the exam. PNU Law School and Korea University were jointly ranked first with the most students who passed.

This is an increase of two over the nine students who passed in the previous year, and PNU stands tall as a prestigious law school with the highest record among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s for two consecutive years.

Along with this, PNU Law School also produced 7 students who were accepted as Supreme Court Law Clerks (preliminary judges). They will be appointed in May of this year. This is four more than the three applicants accepted last year. PNU Law School is reaching its goods for the highest performance in the country.

In October of last year, six graduates from PNU Law School were appointed as judges in the Supreme Court system. PNU Law School was ranked 3rd among the law schools nationwide, which is a splendid achievement. The 9th law school class graduates took the 9th Bar Exam early last year, and their acceptance rate was 81.32%. PNU Law School was ranked first among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s in this metric.

In recent years, as PNU Law School has achieved the highest performance in the country, its external status and reputation have improved. Excellent students who want to advance into the legal field are applying to PNU Law School from all over the country. This virtuous cycle is operating to continue these gains into the future.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snu.ac.kr SNS • www.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 [instagram/snu.official](https://www.instagram.com/snu.official)

시흥캠퍼스에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영

Pilot Project to Operate Self-driving Shuttles on Siheung Campus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LG유플러스, ㈜오토모스와 함께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서 셔틀 서비스 '마중'을 운영하고 있다. '마중'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심야시간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시범사업은 자율주행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2년간 7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에게 자율주행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사업은 ㈜LG유플러스가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과 차량-도로 인프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토모스가 자율자동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을 맡았다. 현재 심야시간대 4호선 수인분당선 오이도역에서 배곧신도시 주거지

역에 이르는 1개 노선을 4대의 셔틀 자동차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낮에는 학생들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는 2021년 말까지 배곧신도시 전역에 걸쳐 5개 노선, 7대 셔틀(승용차 6대, 승합차 1대)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보행자 등이 혼재된 교통상황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로 자율주행을 한다. 또 자율주행차 통신방식(WAVE)을 이용해 교통 신호 정보를 받아 신호에 맞춰 정지하거나 주행한다. '마중' 전용 앱을 통해 탑승을 예약하며 차내에서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율주행 운행정보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책임자인 이경수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심환경 실도로 자율주행의 기술검증과 체감형 서비스

모델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국 지자체와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에 육·해·공 미래모빌리티 연구동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고, 올해 경제자유구역(2019년 6월)으로 선정되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기반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과 자율주행시험장을 건설하여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On October 19,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onjunction with LG Uplus and the Automos Corporation, launched a shuttle service named Majung ("Pickup") in the Baegot New Town area of the city of Siheung, Gyeonggi Province. Operating during late-night hours when public transportation is mostly not available, the Majung service is part of the Self-Driving Mobility Service pilot project, one of the Korean New Deal initiatives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pilot project, consisting of a 7 billion Korean won subsidy for projects that deal with autonomous vehicles, enables corporations to test and develop their self-driving services while providing the public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utonomous vehicles.

For this project, LG Uplus provided the self-driving control platform, as well as the infrastructure for the vehicle-road communication service, while the Automos Corporation led the produc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elf-driving services. Four shuttle cars are currently operating free-of-charge on a single route between Oido station and the residential area in Baegot New Town. Students can freely experience the shuttle cars during daytime. SNU plans to expand the service to five routes and seven shuttles (six passenger cars and one van) spanning the whole town by the end of 2021.

The shuttle cars receive data from traffic signals using the WAVE communication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and operate at a maximum speed of 50 kilometers per hour, adjusting for various traffic situations involving ordinary cars and pedestrians. Passengers use the Majung app to make reservations and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ir self-driving experience through their phones while on board.

"By testing our self-driving technology in an urban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running a service model for the public, our project will serve as an exemplary model for future research and expand its business model to other regions in Korea and beyond," Yi Kyong Su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director of the project, said.

SNU has already established a research center and a test bed for future mobility research at its Siheung Campus. Having been selected as a free economic zone in June 2019, SNU is also actively striving to attract invest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cademia and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SNU has been operating a future mobility research center and a self-driving test center since July 2020, establishing an ecosystem for self-driving-based future mobility.

'마중' 셔틀 자동차(전기차)
Majung Shuttle Car (Electric Vehicle)



'마중' 앱으로 예약상태와 운영위치 등을 알 수 있다
The Majung app allows passengers to check their reservation status and location





공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nu.ac.kr

SNS www.facebook.com/ChonnamUniv

전남대 제21대 정성택 신임 총장 취임

President Jung Sung-taek Inaugurated as the 21st President of CNU

전남대학교 정성택 교수가 1월 15일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전남대 정성택 교수(59. 의학박사)는 총장임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전남대학교 제21대 총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14일까지 4년이다.

정성택 신임 총장은 이날 아침 비서실 직원과 보직교수들의 영접을 받으며 출근한 뒤, '전남대학교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결재함으로써 총장 직무를 시작했다.

정성택 신임 총장은 집무에 앞서 "전남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를 세우는데 힘써 왔다."며 "앞으로 우리가 다져온 내실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남대학교를 '더 강하고, 더 품격있는 대학'으로 발돋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총장은 이어 "전공지식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당당한 전남대인', 위기와 혼돈의 상황에 흔들리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전남대인'을 양성해 청년학생들에게는 희망찬 앞날을 열어주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택 총장은 1980년 전남대 의대에 입학해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며,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장,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남대 학생처장, 의과대학 부학장, 평의원회 평의원,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의 보직을 수행했다.

한편, 정성택 총장 취임식은 2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Professor Jung Sung-taek (59. Doctor of Medicine) was inaugurated as the 21st Presid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 January 15th.

Professor Jung was officially inaugurated as the 21st Presid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 the same day after receiving the approval of President Moon Jae-in for the appointment of president. His term of office is four years until January 14th, 2025.

The new president began his term this morning with a greeting from the secretary office's staff and professors who are assigned to major posts. As his first official presidential work, Jung approved the proposal of the CNU Education Innovation Plan.

Prior to his administration, President Jung stated, "CNU has been striving to establish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by continuing its proud history and tradition. Based on the strength and capabilities that we have cultivated, we will make CNU stronger and more prestigious."

President Jung continued, "By cultivating outstanding talents with knowledge and academic depth, and unbridled talents which are not disturbed or constrained by crisis or obstacle, we will do our best to prepare a hopeful future for young studen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mutual benefit with local communities and national development."

President Jung entered the CNU College of Medicine in 1980 and received a Ph.D.,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Pediatric Orthopedic Society and the Korean Bone and Joint Tumor Society, and textbook committee member for the Korean Orthopedic Association. At CNU, he has served as the Dean of Office of Student Affairs, Vice-dean of the College of Medicine, committee member of the General Council, and planning coordinator of CNU Hospital.

President Jung Sung-taek had a virtual inauguration ceremony on February 1, 2021.

류제황·함유근 교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Professor Ryu Je-hwang and Ham Yoo-geun Selected as the 100 Best Performances in National R&D in 2020

전남대학교 류제황 교수와 함유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선정한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꼽혔다.

이중 전남대 류제황 교수(치의학전문대학원)는 SK바이오팜 외에 콜레스테롤 대사이상이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임을 규명한 연구를 높이 평가받아 생명·해양 분야 최우수성과에 꼽혔다.

또 전남대 함유근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 및 대양간 상호작용을 규명한 순수기초·인프라 분야에서 최우수성과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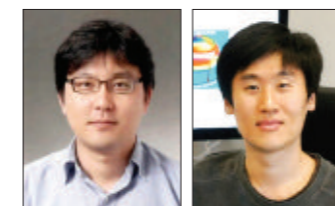
류 교수와 함 교수의 연구논문은 둘 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

Professor Ryu, Je-hwang (School of Dentistry) and Professor Ham, Yoo-geun (Faculty of Earth Systems and Environmental Science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ere sele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as two of the 100 Best Performers in National R&D in 2020.

Among them, Professor Ryu was ranked as the best achievement in the field of life and oceans, receiving high praise for research that identified cholesterol metabolic abnormalities as the cause of degenerative arthritis.

In addition, Professor Ham was selected for having the best achievement in the field of basic sciences and infrastructure by developing a climate prediction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and examining the interactions between oceans.

Both research papers by Professor Ryu and Professor Ham were published in Nature, an internationally prestigious journal.



류제황 교수 & 함유근 교수
Professor Ryu, Je-hwang & Professor Ham, Yoo-geun

정지훈 교수팀, 기후변화 메커니즘 규명으로 사이언스 게재

Research Accomplishment of Professor Jeong Ji-hoon's Team to Identify Climate Change Mechanisms Published in Science



전남대학교 정지훈 교수팀은 북반구 나무 나이테를 이용한 과거기후 복원자료와 지면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염-가뭄의 동시발생이 급증하는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해 11월 27일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됐다.

이 연구는 전남대 정지훈 교수(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펑 장(Peng Zhang) 박사후 연구원(1저자)이 주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유타주립대, 도쿄대, 스웨덴 예테보리대, 베이징대 등이 공동연구팀으로 참여했다.

국제공동연구팀은 나무 나이테 자료를 이용해 동아시아 내륙에서 토양수분과 폭염발생 빈도를 복원한 결과, 최근 이 지역 여름기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뜨겁고 건조하게 급변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지표면의 수증발이 늘어나면서 토양 수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The CNU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Jeong Ji-hoon (Faculty of Earth Systems and Environmental Sciences) successfully investigated the mechanism behind the rapid increase of the simultaneous occurrence of heatwave and drought in East Asia based on historical climate restoration data using tree rings from the northern hemisphere and ground modeling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journal Science on November 27th.

This research was led by Professor Jeong (corresponding author) and postdoctoral researcher Peng Zhang (first author), in addition to the joint research teams of th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tah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Tokyo, Gothenburg University, and Peking University.

The joint international research team used tree ring data to estimate soil moisture and the frequency of heat waves in the interior of East Asia, and finding that the summer climate in this region is rapidly changing to one that is hot and dry at an unprecedented level. This is a phenomenon that occurs as moisture in the soil continuously decreases as moisture evaporation on the surface increases due to global warming.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전북대, 내년 시설 확충 예산 500억여 원 확보

JBNU Secures over 50 Billion Won to Expand Next Year's Facility

학생자치타운, 실험동물센터, 약학대학 증축 등 3건 추진 구성원 노력, 지역 정치권 지원 힘...교육 여건 개선 탄력

전북대학교가 500억 원 이상의 2021년도 정부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확보 예산 대부분이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학생 교육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가 확보한 예산은 학생자치타운 개축에 220억 원을 비롯해 실험동물센터 신축 160억 원, 약학대학 증축 144억 원 등 524억 원 규모다.

김동원 총장은 학생자치타운 신축 및 노후 환경 개선을 취임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후 대학 구성원, 정치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2년 만에 성과를 올리게 됐다.

현재 노후화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회관의 경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학생자치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BTL 방식으로 건립될 학생자치타운은 현재 1·2 학생회관 통합, 신축을 통해 학생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 복지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개축될 예정이다.

또한 160억 원이 확보된 동물실험센터 건립은 현재 공대와 농대, 자연대, 치대, 환생대, 수의대 등에 있는 소규모 동물실험 시설을 '동물실험센터'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의료 재난에 대처하는 동물실험 수행이 가능한 전문 실험동물센터로 거듭나고, 나아가 전북 내 표준화된 거점센터 건립으로 선진화된 연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1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약학대학 역시 이번 성과로 약대 유치 이후 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불과 1년여 만에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예산 확보에 따라 2023년 약대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단독의 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약학대학은 전북대 메디컬캠퍼스 내 위치한 생명과학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해 약학대학 전용으로 사용된다.

30년 숙원사업으로 2020년 신설된 약학대학은 약학대학 교육·연구시설 증축 및 시설재배치 사업이 국회에서 2021년도 국립대학 시설사업으로 통과됨에 따라 약학대학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환경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약학교육평가인증 시설 지표를 충족할 수 있는 필수 공간 확보로 추후 학생 및 교원의 증가가 기대되고, 특히 2022년 신·편입학에 대한 대응까지 한결 가벼워졌다.

김동원 총장은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민들의 지지, 그리고 김성주, 윤준병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든든한 지원 등이 조화를 이뤄 내년 예산

안 반영에서 우리대학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학생 교육과 연구 경쟁력 강화 등 대학 본연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과도 따뜻하게 동행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To build students' autonomy town, laboratory animal center, and School of pharmacy facilities (3 projects). Accelerating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through the efforts of JBNU members and supports from local politic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s secured a large amount of government budget for 2021 worth more than 50 billion won. Most part of the budget will be used for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which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tudents' education.

The total budget is 52.4 billion won from which 22 billion won is for the renovation of a students' autonomy town, 16 billion won is for a new laboratory animal center, and 14.4 billion won is for an extension of the School of Pharmacy.

President Dong-Won Kim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a students' autonomy town and improvement of the old environment as a pledge on the inauguration. Since then, through close communication with JBNU members and political circles, the results have been achieved in two years.

The two Student Halls, which are currently difficult to use due to aging, will be transformed into a students' autonomy town that provides one-stop service for students with this budget.

The students' autonomous town will be built through the BTL method and the first and second Student Halls will be consolidated through the new construction for creating a foundation for student activities and students' welfare. It is expected to be renovated with 1 basement level and 4 ground levels by 2022.

The new Laboratory Animal Center will integrate small-scale animal experiment facilities currently running at the College of Engineering, Agricultural Life Science, Natural Science, Dentistry, Environmental & Bioresource Sciences, and Veterinary Medicine by the construction of the center with 16 billion won.

It is expected to be reborn as a specialized laboratory animal center capable of conducting animal experiments to cope with

national medical disasters caused by COVID-19, and to establish an advanced research environment by building a standardized base center in Jeonbuk province.

At the same time, the School of Pharmacy, which received a budget of 14.4 billion won, has also made efforts to improve student's educational conditions and it already achieved a good result in just one year since its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is budget, it will secure an independent facility through expansion and remodeling of the drugstore in 2023. It wi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College of Pharmacy by expanding and remodeling the Life Science Hall located in JBNU Medical Complex.

The School of Pharmacy,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2020 as a 30-year long-awaited project of JBNU,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s a National University Facility Project in 2021 with its project for the expansion and relocation of the School of Pharmacy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Thus, it starts operat-

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suit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of Pharmacy.

The number of students and teacher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by securing the necessary spaces to meet the indicators of facilities for pharmacy education evaluation certification. In particular, the response to new and transfer admissions in 2022 will become much easier.

President Dong-Won Kim said, "The endless efforts of the members, the support of the local people, and the strong support of local politicians such as National Assemblymen Seong-ju Kim and Jun-byung Yoon were harmonized, and our university was able to achieve good results with the next year's budget. We will further strengthen the internal stability of university with upgrading the student education and research competitiveness, and move forward to a university that accompanies the region warmly."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eju.ac.kr SNS www.facebook.com/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하버드 의대와 치매치료제 개발한다 카르틱 교수팀, 커큐민 활용 공동연구 수행

Collaboration with Harvard Medical School Aims at Developing a Drug for Dementia Therapy
Dr. Karthikeyan and His Co-Workers to Carry out the Joint Research on Curcumin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소장 이호연) 카르틱(A. Karthikeyan, 인도) 연구교수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함께 커큐민(curcumin)을 활용한 치매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다.

커큐민은 강황 또는 울금으로 불리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특유의 노란색을 이루는 카레의 주성분이다.

카르틱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CRP(지속가능농업 공동연구프로그램) 지원과제로 선정돼 내년부터 하버드 의대, 메사추세츠병원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카르틱 교수를 비롯해 제주대 연구팀은 앞서 커큐민의 생체 내 흡수율을 대폭 향상시킨 나노스피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육성 비육돈에 대한 커큐민 나노스피어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카르틱 교수와 커큐민의 효능연구를 수행해 온 제주대 동물생명공학부 민태선 교수는 "그동안 강황에서 추출된 커큐민은 면역력 향상, 치매예방, 항염, 항암, 항산화 등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체흡수율이 매우 낮아 그 효용성이 제한돼 왔다"고 말했다.

카르틱 교수는 "기초연구로 수행된 이번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 코로나 19로 인해 우울한 전 세계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search Professor Dr. A. Karthikeyan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Subtropical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 (Hyo-Yeon Lee, Director) plans to work with a research group of Harvard Medical School in studying the potential efficacy of curcumin as a dementia therapeutic drug.

Curcumin is the yellow pigmented component of the curry isolated from the roots of *Curcuma longa*.

Dr. Karthikeyan's research has been funded under the OECD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program (CRP) for the international joint project with Harvard Medical School and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He and his JNU co-workers were able to show in their patented work that curcumin nano-particle has a significantly enhanced absorptivity in test animal pig.

Professor Min Tae Sun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Faculty of Animal Biotechnology who coworks with Dr. Karthikeyan said that curcumin has been known to possess anti-inflammatory, anti-cancer, and anti-oxidant activities, but its therapeutic efficacy has been limited due to the low absorptivity.

Dr. Karthikeyan hopes his basic research leads to fruitful results that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under COVID-19 stress worldwide.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지역공감 네트워크로 사회문제 해결

Education Recognized as Exemplary Governmental Innovation Case
Resolving Society Issues Through Regional Empathy Network

제주대학교 교육정책이 '2020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번 선정된 우수사례는 'JNU(제주대학교) 지역공감 네트워크로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정책이다.

제주대가 제시한 정책은 지역 공감형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니즈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혁신기관·산업체·대학이 함께하는 '과제연구반' 구성, '강소산학협력협의회' 운영, '기술사업 혁신협의체' 운영을 주문했다.

대표 사례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 처리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지역 참여 연구공동체와 함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선간편식 개발 연구가 있다.

이 정책을 통해 2019년에는 과제연구반 15개와 강소산학협의회 14개가 운영됐고 제주도 내 9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그 결과 193억 원의 지역문제 해결형 국책사업 유치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번 우수사례는 전국에서 10개 사례(교육부 2개, 시·교육청 5개, 국립대 3개)가 선정됐고 국가 거점 국립대학은 제주대가 유일하다.

송석연 총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한 혁신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Je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policy was cited for excellence as an exemplary case of the 2020 governmental innovations in education.

The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example cited refers to the policy of "the JNU regional empathy network for the citizens to resolve social issues."

The policy implemented by JNU is to expand the regional empathy-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resolving regional society issues and finding the needs for solutions.

The stated policy calls for regional innovation organizations, industries, and the university agree to form a "subject study group," operate an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committee," and manage the technological project innovation group.

A typical example represented by the development of fresh convenience food based on the region's farm produces in collaboration with the regional research group interested in solving the problem of handling excess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this policy, 15 study groups and 14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committees were

formed and operated with more than 90 Jeju provincial organizations and industries participating. As a result, the project lured 19.3 billion krw grants from the governmental sponsors for solving regional problems.

List of the exemplary programs includes 10 cases (2 Ministry of Education, 5 city and education boards and 3 national universities), with Jeju National University being the only one representing the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President Song Seok-Eon stated that "the university would continue to implement worthwhile policies for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s that people would feel compathy."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충남대학교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W

**충남대학교, 1인당 2억 원 상당 파격 장학금
'CNU Honor Scholarship' 신설**

CNU Expands its "CNU Honors Scholarship"
to up to 200 Million Won for Outstanding Students.

“충남대가 ‘슈퍼 엘리트’의 신입생 시절부터 박사과정까지 등록금과 생활비, 기숙사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가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으로 1인당 2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장학금인 ‘CNU Honor Scholarship’을 신설했다.
이번에 새로 신설돼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하는 이 장학금은 충남대 학사, 석사, 박사 전 과정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기당 75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학부 졸업 후 해외 유수의 대학에 유학할 경우 석사과정 4,000만 원, 박사과정 6,000만 원의 해외 유학 장려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재학 기간 동안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및 생활관비 면제, 글로벌 파견 프로그램(CNU GHS) 우선 선발의 특혜도 주어진다.
‘CNU Honor Scholarship’에 선발되면 이공계 학생이 충남대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이수 할 경우 약 2억 원에 가까운 장학 혜택을 받는다. 학·석·박사 등록금 5,100만 원, 학업장려금 1억 3,500만 원, 학생생활관비 1,080만 원 등 총 1억 9,68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장학금은 국내 국공립, 사립대학 통틀어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선발 대상은 수능성적 전 영역(국어, 영어, 수학, 탐구) 1등급인 최상위권 학생(특정학과 편중 방지 및 다양한 학문분야 지원을 위해 의예,수의예,약학 제외)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된다.
‘CNU Honor Scholarship’은 이진숙 총장이 후보자 시절 거점 국립대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끝까지 육성하기 위해 내놓았던 공약으로, 이 총장은 취임 직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장학제도 신설을 논의해 왔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우수한 인재가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학업에만 전념하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파격적인 장학제도가 필요해 ‘CNU Honor Scholarship’ 장학제도를 신설했다”며 “충남대학교 미래 100년의 발전을 이끌 인재를 유치하고 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에 입학한 ‘슈퍼 엘리트’가 충남대는 물론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공부할 경우도 지원해, 그 학생이 다시 충남대로 돌아와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CNU Honor Scholarship’이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장학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CNU(President Jin-Sook Lee) has launched the “CNU Honors Scholarship,” an unprecedented scholarship worth 200 million won per student for tuitions and academic grants from undergraduate to graduate courses. CNU is awarding full-tuition and total-cost support for outstanding students living on campus and dormitories from their first year through graduate school.

This newly established scholarship will begin this year, and outstanding students’ tuitions will be fully funded for the whole academic year, from undergraduate, M.A. to Ph.D. programs at CNU. Additionally, it will give merit scholarships worth 7.5 million won to each student per semester. If graduated students study abroad at a leading university, 40 million won for the master’s program and 60 million won for the doctoral program are also supported.

Students will be given priority assignment of dormitories, exemption from dormitory fees, and preferential selection of the Global Dispatch Program(CNU GHS) during the enrollment period.

If those who major in science and engineering complete an undergraduate, master’s, or doctoral program at CNU, they receive a scholarship benefit of nearly 200 million won. A total of 196.8 million won is provided, including 51 million won for undergraduate, masters, and doctoral tuition, 135 million won for academic incentives, and 10.8 million won for dormitory ex-

penses. These scholarships will be the largest among all the universities in Korea.

Applicants for this scholarship are top-ranked students who have achieved high scores in all areas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Korean, English, Maths, and Science. It will begin in 2021 for first-year students who major in various academic areas except medical, veterinary, and pharmacology disciplines to prevent specific departments’ bias.

The “CNU Honors Scholarship” was one of the pledges made by the president, Jin-Sook Lee, to attract and nurture outstanding students in the region when she was a presidential candidate. She has been discussing establishing a scholarship system through consultation with related university departments since she took office.

In so doing, she addressed the need to establish a CNU Honors Scholarship for students of exceptional ability and outstanding achievement to complete their degrees at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region. “We will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education that will fulfill their potential and will lead to a competitive, 100-year of future for CNU.”

The president, Jin-Sook Lee, said that the CNU Honors Scholarship would be awarded to encourage outstanding students who have demonstrated academic excellence for their M.A. and Ph.D. degrees both at CNU and at other promising universities abroad, to develop the leadership qualities they need for professional careers. When they return, they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following generation of students and staff at CNU.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충북대,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

CBNU, Another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

2021년 개교 70주년 기념 엠블럼 및 캐치프레이즈 선포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가 2021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을 대표할 엠블럼과 캐치프레이즈를 공식 발표했다.

충북대는 개교 70주년 캐치프레이즈를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으로 정했다. 이는 지역민들의 염원으로 뿌리를 내린 충북대가 70년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을 품고 세계 속에서 꽃피울 새로운 미래 100년에 대한 비전을 담았다.

충북대는 국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지난해 9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교 70주년의 이미지와 미래 100년을 향한 포부와 비전을 표현하는 디자인의 '엠블럼'과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결과 약 200점이 응모됐으며, 엄정하게 심사해 선정했다.

충북대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도민들이 미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벽돌 한 장, 보리쌀 한 말씩을 자발적으로 모아 쌓아 올린 인재양성소로서 지역과 발맞춰 성장해왔으며, 2021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점으로 충북대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충북대

학교 미래 비전 2050'을 모색, 캠퍼스별 특화된 발전계획 등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립대학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대는 2019년부터 33개의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선정, 5130여억 원을 확보해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758명의 교수와 석·박사, 연구원, 학부생 등 학문지식공동체를 이루고, 15만 동문이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대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한다는 목표 아래 캠퍼스 개방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70주년 기념 서체개발, 누리뉴얼 개발 사업, 70주년 기념영상, 70주년 기념 홈페이지, 70년의 역사를 담은 달력을 제작하고, 70주년 기념식 및 감사의 밤 행사, 타임캡슐 제작사업과 옛 사진 수집 공모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In 2021, CBNU presents a new emblem and sloga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CBNU (President Kim, Sukab) presented a new representative emblem and sloga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in 2021.

The 70th anniversary slogan is 'Another 70 years as Regional Roots, Another Century Towards The World'. This means that CBNU, built with all the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has a new vision based on its 70 year old development to flourish in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gion for another century.

To improve together with the country and the region, CBNU held a nationwide design contest last September to select an emblem and a slogan showing its 70th anniversary image as well as the aspiration and vision for another century. More than 200 works were submitted and the winners were selected through a strictly impartial judging process.

CBNU was built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by local residents. These residents wanted to cultivate leaders of the future, so each of them donated a brick and a bag of barley to build it. As a center for human resources, CBNU has developed with the region and finally marks the 70th anniversary in 2021. Taking this opportunity, CBNU has sincerely tried to reestablish an individu-

alized plan for itself. For example, a plan titled 'CBNU Vision 2050' for another century, a specialized plan for each campus, and etc. In addition, CBNU tries to consider the wa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university, that is reinforcement of publicity in higher education.

CBNU has won 33 state-funded projects since 2019, which could get approximately 513 billion won from the government. Thus, it is possible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rain its human resources. CBNU made the community of learning and knowledge, which consists of 758 professors who are leading experts in every field, PhDs, MDs, researchers, students, and etc. And 150,000 alumni have tried to do their best to develop CBNU. Based on these efforts, CBNU has carried out many cooperative programs such as opening the campus to co-exist and develop with the region.

To celebrate its 70th anniversary, CBNU made a Memorial Project Committee in 2020 and has been preparing many things like 7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font, film, web site, calendar, and time capsule, UI renewal project, 70th anniversary ceremony and reception, an old photo contest, and etc.



지역의 뿌리로 70년
세계로 꽃피울 100년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탄력정원제’ 도입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Implementation of Flexible University Quota System for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강원대학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는 ‘탄력정원제’를 2022학년도부터 도입한다.

강원대는 대학구조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탄력정원 중심 대학구조혁신안’을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해 11월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혁신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2년간(2019~2020년) 정원내 재학생 총원률을 바탕으로 학과(부)별 입학정원 145명을 조정한다.

또한, ‘탄력정원제’를 통한 정원조정 외에도 ▲학부의 학과 전환(소프트웨어 미디어-산업공학부 → AI소프트웨어학과) ▲학과-학부 간 통합(관광학과 → 글로벌인재학부 관광전공) ▲전공 간 통합(건설융합학부 3개 전공 → 2개 전공(건축학전공, 토목공학전공)) 등 학사구조 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강원대는 이번 대학구조혁신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8월 교수회 추천위원 2명, 학장협의회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하여 ‘대학구조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7차례에 걸친 회의와 설명회, 의견수렴 기간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학사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했다.

앞서, 강원대에서는 지난 2019년 ‘단과대학 재구조화’를 통해 ▲문화예술·공과대학 ▲인문사회·디자인소프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 + 평생학습중심학부)이 각각 ‘통합 단과대학’으로 출범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대는 이번 혁신안 마련을 계기로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외부 교육환경에 대응하면서도,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서 공공성 확대와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KNU will institute the Flexibl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from 2022 academic year to reinforce its competitiveness through admission quota adjustment by department.

The ‘University Structure Innovation Proposal Focused on Flexible Quota,’ proposed by the University Structure Innovation Committee was confirmed by KNU last November, after passing the Advisory Council’s review.

This Innovation Proposal was prepared to reinforce the university’s competitiveness given that the school-age population is decreasing, and to ensure students’ right to choose their field of study. Accordingly, admission adjustment is made for 145 students by department (faculty) based on the retention rate of enrolled students within the quota over the recent two years.

In addition to quota adjustment through the flexible quota system, faculties and departments will be reorganized as follows: Faculty of Software Media/Industrial Engineering Department will be changed to Department of AI Software; Department of Tourism will be integrated with Tourism major of the Faculty of Global Talents; 3 majors in the Faculty of Construction Convergence will be reorganized to 2 majors (Architecture major and Civil Engineering major).

In particular, KNU has structured the University Structure Innovation Committee last August to include 2 members recommended by the Professors Association and 2 members recommended by the Council of Deans. 7 meetings and briefing sessions were held and opinions were collected for a designated period of time by the Committee in an effort to form a consensus on and provide reasons for the need to reorganize faculties and departments.

The ongoing efforts for innovation include KNU’s college restructuring earlier in 2019, launching integrated colleges of: College of Art, Culture and Engineering; College of Social Science and Design Sports; and,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Faculty of Lifelong Learning).

It is KNU’s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these innovative arrangements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external education environment including the reduction of school-age population while actively engaging itself to expand its public roles as one of the nation’s flagship university and implement educational innovations to promote foundation studies.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KNU’s Campus Innovation Park, Designated as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대학의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강원대는 2019년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며,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캠퍼스내 6만 6,500㎡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모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4배의 고밀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사업인 「산학연 혁신 HUB」는 약 5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상 8층, 연면적 약 2만 2,300㎡ 규모로, 2021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곳은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강원대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등의 기업 300여개를 유치하고 1,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를 빅데이터 산업의 중간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KNU’s Campus Innovation Park was designated as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The Campus Innovation Park is a collaborative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at is aimed at building a university into an innovative hub by developing its idle land into a high-tech industrial complex. The Complex will have buildings constructed for businesses to move in with a focus on industry-academy-institution projects as well as corporate capability enhancement projects driven by the government.

KNU was the only university selected in 2019 as the Leader Project for Campus Innovation Park among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n the country. With its designation as an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the natural green district in the campus over an area of 66,500㎡ will be altered into the semi-industrial district that will allow development in a scale up to 4 times larger than before.

The first project of KNU’s Campus Innovation Park is the Industry-Academy-Institute Innovation HUB which will receive

50.5 billion KRW investment and the building will be eight stories high with a total floor area of 22,300㎡. The construction schedule is planned to begin in the first half of 2021 and end May 2023. The building will be utilized not only for working spaces but also for a space of frequent inter-business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KNU will capitalize on the regional advantages to invite 300 companies in big data-based bio/digital healthcare fields and create 1,500 jobs so as to develop the Campus Innovation Park as an intermediate base of the big data industry.





다시 뜨겁게!
다시 자랑스럽게!
경북대학교

Bringing Back KNU Pride and Gl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knuofficial1946

경북대 제19대 흥원화 신임 총장 취임 “전 구성원과 함께 자랑스러운 경북대를 만들어 갈 것”

Dr. Won-Hwa Hong, the 19th President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kes Office with the Aim of Returning Pride t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mong All University Members

제19대 경북대학교 흥원화 총장 취임식이 지난해 11월 24일 개최됐다. '새로운 100년, 시대를 선도하는 KNU'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흥원화 총장은 1986년 경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공학 단장,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기술개발 사업단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표준분류심의위원회 계열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경북대에서는 1999년부터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재임하면서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공과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흥원화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의 의미, 기대를 잘 알고 있고 가능하기조차 어려운 그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다."며, "열정과 긍지를 가진 사람 중심의 대학,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지역 공동체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기초학문 연구육성과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을 통한 세계적인 대학, 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복지가 구현되는 모두가 행복한 경북대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취임 첫 날 교내 제 단체장들과 함께 학내를 거닐며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흥원화 총장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소통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학내의 물론 지역과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Dr. Won-Hwa Hong, the 19th President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as held on November 24. President Won-Hwa Hong, who began his term on October 21 under the slogan of "A New 100 Years, KNU is Leading the New Era!" graduated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artment in 1986 and received a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from Waseda University in Japan. He served in multiple positions including the head of the Engineering Sector at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 member of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a director of Disaster Safety Technology Development Found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nd is currently serving as the head of the Division Review Committee of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phase Basic Research Project Promo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 held positions such as the Dean of External Cooperation, Dean of Academic-Industry Collaboration and Research and Dean of College of Engineering. In his inauguration speech, President Won-Hwa Hong said, "I am deeply aware of, and feel the weight of the support and expectations that university members have sent to me. With passion and pride, I will develop KNU into a human-oriented university with passion and pride, a leading institution taking the frontline of intellectual innov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 contributor to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a world-class univers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basic academic research and creative convergence talent, and eventually a university where its members are all happy with welfare implemented by communicating and harmonizing." On his first day in office, Dr. Hong began his term by walking around the campus with group leaders, taking steps to overhaul the organization to strengthen education, research and communication, and to closely cooperate with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융합학부에 대한 재학생들의 열기 뜨거워

The Students' Enthusiasm for the Convergence Department is Rocketing

국립대 최초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북대 융합학부가 본격적으로 신입생 선발에 발 벗고 나섰다. 경북대는 신입생 선발에 앞서 '융합학부 발전방안 세미나'와 '학생선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입장 인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9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해 융합학부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경북대 융합학부는 ▷인공지능(AI) ▷의생명융합공학 ▷로봇 및 스마트시스템공학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 4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분야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포함된다. 올해 1학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

For the first time among national univers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s recruiting from its enrolled students for the newly created Department of Convergence and has started to recruit new students for the department as well. Prior to the selection of new studen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ld a seminar and a 'Briefing Session on Student Selection Process' Despite the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students that could attend due to social distance, more than 90 students came and showed great interest in the convergence departm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Department of Convergence is made up of four majors including ▷ Artificial Intelligence (AI) ▷ Biomedical Convergence Engineering ▷ Robot and Smart System Engineering ▷ and Hydrogen and Renewable Energy. These majors are high-tech sectors tha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y are included in specific areas of training manpower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ew students will be selected from the first semester of this year.



퇴임교수의 제자사랑 이어져

The Love for Students by Retired Professors Continues

경북대 퇴임교수들의 제자사랑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익명을 요구한 경북대 명예교수가 10억 원을 전달한 데 이어, 10일 송창한 전 경북대 교수가 2억 원의 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익명의 명예교수는 "제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송창한 전 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대구시의 '시민장학금'을 받고 목표했던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제야 학교와 사회에 진 빚을 어느 정도 갚게 된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The love for students by retired professor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ntinues. On December 2, an honorary professor who asked not to be identified, donated 1 billion won, followed by Dr. Changhan Song, a former professor who donated 200 million won as development funds to the school on the 10th. "I thought a lot about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my students could concentrate on study and research," said the anonymous professor, asking that the school take extra care to ensure the scholarship is delivered successfully to students who work hard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Dr. Changhan Song, a former professor, said, "I was able to complete my goal of studying after receiving a 'citizen scholarship' from Daegu City in the days of economic difficulties." "I think I have finally paid some of my debts to the school and society."





경남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명문대학
The Best GNU
경상대학교

The World-Leading Prestigious University in Gyeongnam
The Best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gnu.ac.kr SNS • www.facebook.com/smartGNU • blog.naver.com/gnujinju

경상국립대학교 2021년 3월 1일 출범

Ministry of Education Approves Consolidation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부,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승인

경상대학교가 국립 경상과학기술대학교와 통합한다. 교육부는 “양 대학의 자율적인 통합이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양 대학의 통합은 2005년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립대학 통합 사례와 달리 입학정원 감축 없는 동일지역 국립대학 간 자율적 통합 추진의 첫 사례다.

2021년 3월 1일 출범하는 통합대학 교명은 '경상국립대학교'이다. 통합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입학정원은 4,313명이다. 통합대학의 총장은 현 경상대 총장이 된다.

행정조직은 8처 1국 1본부 14과 12행정실로 구성된다. 대학본부는 캠퍼스 특성화 및 기능별 분류를 바탕으로 체제를 이원화한다. 칠암캠퍼스는 대외적 기능을, 가좌캠퍼스는 내내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상대 권순기 총장은 “이번 대학통합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과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통합대학은 거점대 입학정원 규모 3위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성화 및 통합 시너지를 활용하여 국내 10위권,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o launch on March 1st, 2021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ill consolidate with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NTECH).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 “We have approved the voluntary consolidation of the two schools as it will strengthen the roles of these national universities and offer an opportunity to seek a combined development direction for specialized areas.”

Unlike the national university consolidation project conducted as part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in 2005, this consolidation is the “first of its kind that has been voluntary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same region without a reduction in admission quota.”

The combined school’s name to launch on March 1st, 2021, will b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Student recruitment for GNU will begin in 2022, and the total number of new students will be 4,313. The GNU president will be the one from the current GNU, and a vice president of the Chiram Campus will be appointed from recommended members of GNTECH.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ill consist of: 8 Offices, 1 Bureau, 1 Agencies, 14 Divisions, and 12 Administration Offices. The University Headquarter divides the system into two by campus specialization and functional category - the Chiram Campus will serve an external function while the Gajwa campus serves an internal one.

Soon-Ki Kwon, the president of the curr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aid, “The consolidation will elevate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position and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university to be ranked 10th in the country and 100th in the world through specialized areas and synergy, with the size of the third admission ranking among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울산·경남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Ulsan-Gyeongnam Region Selected as Remote University Education Support Center’

권역 내 대학들의 원격수업 질 향상에 기여

경상대학교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 선정되어 울산·경남 권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6,2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운영되며 모두 5년간 53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상대는 이 사업으로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을 어려워하는 권역 내 대학들에 공동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여 지원한다. 강의 녹화 스튜디오도 구축하여 울산·경남 권역의 교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권역 내 대학들이 공동 활용하고, 중앙센터에서 유통되도록 하여 고등교육 ‘교육 자원 공개(OER, Open Educational Resources) 프로그램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원격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마련하는 등 권역 내 대학들의 원격수업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손정우 교육혁신본부장(물리교육과 교수)은 “16년 동안 운영해 온 경상대 이러닝지원센터의 원격교육 비법을 전수하고, 현재 구축 중인 경상남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공유 대학과 연계하여 울산·경남 권역 대학에 높은 수준의 원격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Contributing to Improving Quality of Remote Classes of Universities within the Reg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as been selected to serve as 'Remote University Education Support Center by Region'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managed by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GNU will play a pivotal role in supporting remote education for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Ulsan and Gyeongnam region. The project cost for this year is USD 971,190. The project will be conducted annually until 2025, and a total of around USD 4.8 million will be invested.

Through this project, GNU will support universities within the region that have difficulty in introducing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for remote education. GNU will also open a joint lecture-recording studio. Teachers in Ulsan and Gyeongnam can use it together by establishing a cloud-based, joint use learning management system.

The university develops the content of remote lectures for joint use of other schools and makes it available on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In particular, GNU supports those schools in the reg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remote classes in different ways, such as organizing education and workshops.

Jeongwoo Son, Office of Education Innovation (Professor at Physical science Education), said: “We will transfer a secret for GNU’s Easy Learning Center that has been running for 16 years. We will offer schools a chance for high-level remote learning, connecting with collaborative universities from Gyeongsangnam-do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INTRODUCTION TO KOREA NU10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총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완료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2, 2015, 2017)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송석연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a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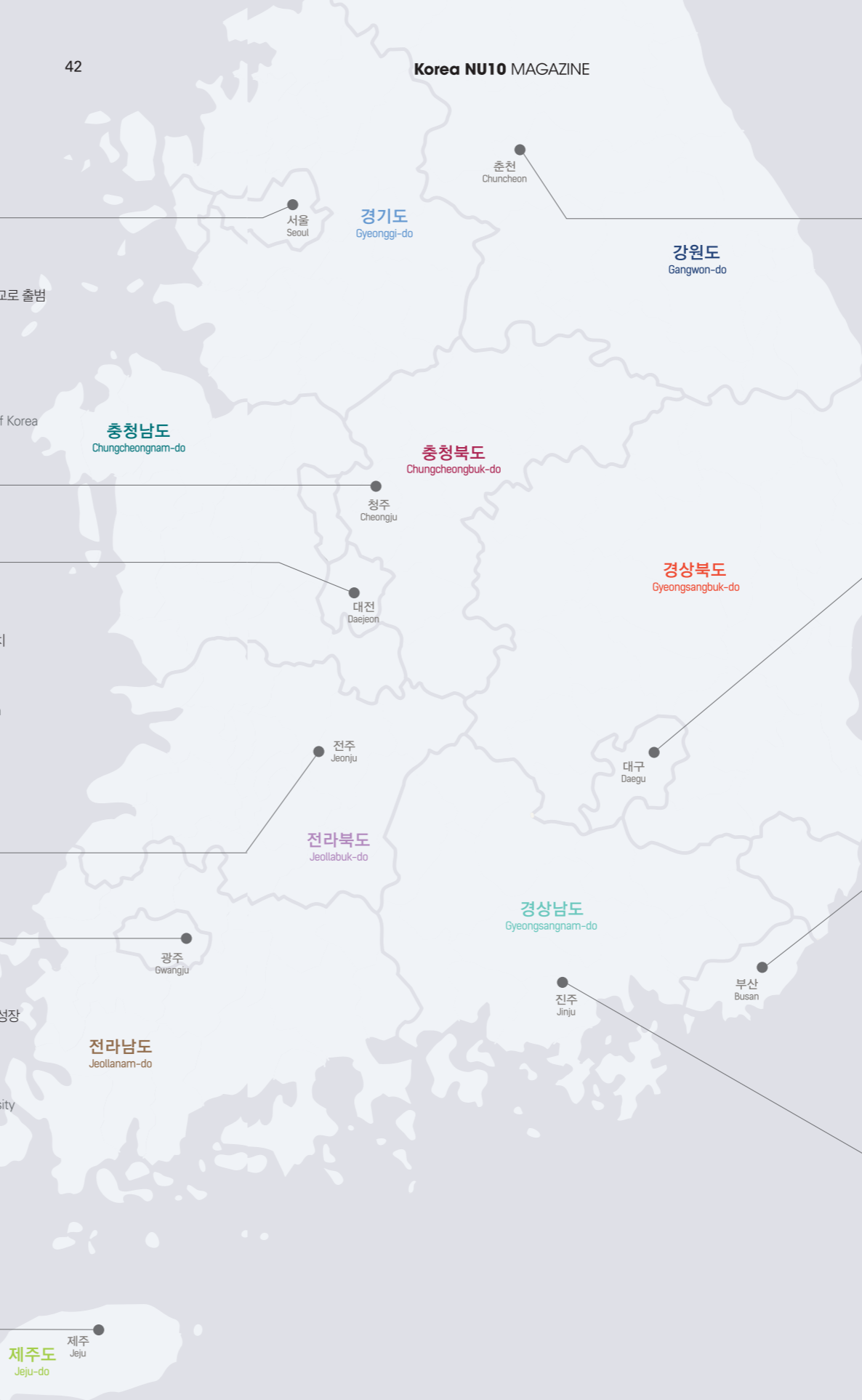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차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성택 President Jung Sungtea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금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7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7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차정인 President Cha, Jeong I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권순기 President Soon Ki Kwon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